도서관, 희망을 파견하다

글 | 이 서 린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파견작가
seawind222@hanmail.net

"돈은 주조된 자유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죄와 벌』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국 경제적인 힘이 자유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돈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속세를 벗어났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일부 특정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평범한 직장인이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이건 간에, 돈은 삶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해도 그 지배력을 벗어나기 힘들다. 밥을 먹지 않고 어찌 창작을 하며, 고된 직장을 다닐 수 있겠는가.

월급을 받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업 작가인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글만 쓴다고 누가 글 쓴 만큼 돈을 주진 않는다. 그냥 작가가 쓰고 싶어서 마냥 쓸 뿐, 옛다, 열심히 썼다 하고 툭, 생활비를 주진 않는다. 물론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청탁을 하는 경우는 얼마간의 원고료를 받는다. 등단지가 알만한 곳이고 노출이 많이 된 작가는 심심찮게 청탁이 들어와 그나마 약간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작가가 더욱 많기에 작가들은 커피 한 잔, 술 한 모금, 담배 한 갑이 아쉬울 때가 종종 있는 것이다.

컴퓨터의 커서를 한참 노려본다고, 원고지 파지를 숱하게 생산해 낸다고 밥이 생기거나 문화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작가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도서관과 문학관에 작가를 파견한다 –. 이 어찌 고마운 일이 아니겠는가. 문화예술이 활발해야 그 나라의 의식과 가치관이 상향되는 법이다. 문명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발달이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지혜를 길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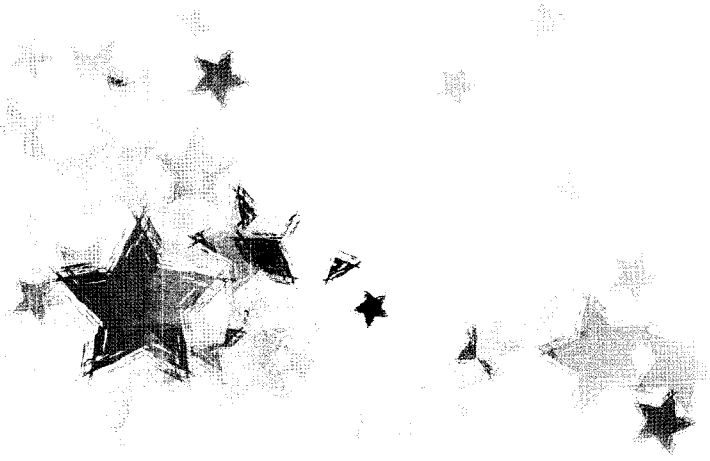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글을 쓰면서 아이들이나 주부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지식과 책, 문학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다. 혹은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문명의 발달로 요즘은 집에서 컴퓨터로 강좌를 들을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료인 경우도 몇 안 되며, 설사 무료라 하더라도 집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배우고 실천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다. 보통 의지로서는 끝까지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뜻이 같은 이들을 만나 서로 격려하고, 소통을 하는 경우는 끝까지 배움을 나누고 이어간다.

이런 양쪽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작가파견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작가파견이란 획기적인 사업을 시행하므로, 작가에게는 재능을 나누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강의를 듣는 이들에게는 경제와 시간과 거리적인 여건 때문에 접근이 힘들었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다.

도서관이나 문학관에 찾아오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파견된 작가가 찾아가서 재능을 나누기도 한다. 시골이나 도시 변두리에도 문학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 누구나 한때는 문학 소년이고 소녀였던 적이 있다. 그것을 작가파견 사업을 통해 잊었던, 혹은 잃었던 꿈을 다시 들추어 햇빛과 달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현실에 적응하느라 꾹꾹 눌러 놓았던 서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살아나 메마른 일상을 적셔주는 시간이, 바로 작가와의 만남이리라.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자기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면, 먼 시간 뒤에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효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모든 예술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속, 도서관과 문학관에 작가를 파견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백만을 넘는다는 시대. 일할 수 있는 몸과 정신은 있으나 일 할 곳이 없어 오늘도 직업소개소나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내러다니는 사람들. 취직을 포기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속에서, 작가에게 이런 사업을 마련해 제공하는 문화예술 담당자들과 기획자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고, 수강생들을 만나 문학과 다른 장르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책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은 아주 크다. 거기에다가 창작비와 강의료를 지급받는다는 기쁨 또한 몹시 크다. 하여 창작에 몰두할 수 있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정부 시책 중에는 바뀌거나 사라진 것이 허다하다. 작가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배움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도서관과 문학관 작가파견 사업이 부디 잘 이어나가기를, 다시 손모둠 해본다.